

하느님의 선물, 내 아이

유아세례 전 부모를 위한 길잡이



평택 고덕성당

하느님의 선물, 내 아이

1. 시작기도 : 주님의 기도
2. 환영인사
3. 교육소개 - 참된 부모의 길(20분)
 - (어린 자녀를 위한 기도, 아이들에 관하여)
 - 칠성사에 대하여(20분)
 - 유아세례 예식에 대하여(20분)
4. 참석자 소개 (각자 이름, 세례명, 세례년도)
자녀 소개 (자녀의 이름, 나이, 예정세례명)

어린 자녀를 위한 기도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저에게 온 ()을/를
평생의 모든 삶 안에서, 매일의 일상 안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진지한 호기심으로 무엇인가 탐구할 때,
놀이 안에서 기쁜 미소를 보일 때,
부모나 어른들의 사랑과 보호아래 행복할 때,
맛있는 음식에 감사할 때,
어두운 밤잠자리에서도,
세상의 모든 위험 앞에서도 두려울 때도
하느님 제 아이 ()을/를 당신 가슴에 품어주십시오.
()의 삶의 모든 것 안에 항상 함께 계시어
당신이 빛으신 모습대로
나쁜 것은 버리고
선하고, 올바른 것들은 잘 받아들여
올곧고 온유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겸손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을 삶 안에서 대하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귀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저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제 아이를 사랑하는 온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청합니다. 아멘.

칠성사, 우리 삶의 힘

성사는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매 단계마다 성사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례성사입니다.

1. 세례성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나는 성사

※ 세례성사의 효과

- 모든 죄가 다 씻어짐
-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남
- 교회의 정식 가족이 되어 나머지 성사도 받을 수 있음
- 우리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영적 표시인 인호가 새겨짐

♣ 나는 성부와 (첫 번째 물 붓고)

성자와 (두 번째 물 붓고)

성령의 이름으로(세 번째 물 붓고)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2. 견진성사

신앙을 더 깊어지게 하고 굳건해지도록 도와주는 성사

- ‘그리스도인의 성인식’

3. 성체성사

성체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생명의 빵

- 미사 중 성체성사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 영성체를 위한 준비

- 몸의 준비: 공복재

- 마음의 준비 : 마음을 깨끗이 (대죄를 지었다면 고해성사 받아야)

4.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언제나 하느님과 화해하며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를 치유시켜주는 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사제를 통하여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고해성사의 다섯 단계

성찰 - 통회 - 결심 - 고백 - 보속

5. 병자성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희망을 베푸는 성사입니다.

※ 병자성사의 대상

중증환자, 수술을 앞둔 환자, 노환으로 쇠약해진 노인

-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6. 혼인성사

창조주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성사.

혼인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셨고, 거룩한 혼인생활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 단일성, 불가해소성, 신자와 신자의 혼인, 교회법에 따른 혼인

7. 성품성사

성직자들을 축성하여 그들이 성무(미사 집전과 같은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사입니다.

- 교회 안의 모든 성사는 오직 사제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 교회 안에서의 사제는 인간이면서도 예수님의 대리자이므로 신자들은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제의 사목을 도와야 합니다.

준성사

성사처럼 성령의 은총을 주지는 않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 축복, 봉헌(축성) -목주, 고상, 새성전

아이들에 관하여

칼릴 지브란

그대들의 아이들이라 해서 그대들만의 아이들은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아들이며 딸들이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 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며,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는 아닌 것.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순 없다.

아이들은 아이들 자신의 생각을 가졌기에.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줄 수는 없기 때문이리라.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결코 찾아갈 수도 없고,

꿈 속에서도 가 볼 수도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에.

그대들 아이들처럼 되려고 애쓰되 아이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고
애쓰진 말라.

삶이란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는 것이기에.

그대들은 활.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 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그대들로부터 쏘아져 나아가는 것.

사수(射手)이신 신(神)은 무한의 길 위에 한 표적을 겨누어,
온 힘으로 활을 당기신다.

그분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은 사수이신 신의 손길로 당겨짐을 기뻐하라.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므로.

유아세례 예식

우리 아이는 단순히 우리만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시작(환영식)

- 이 아기들의 세례명을 무엇이라고 짓겠습니까?
- 이 아기들을 위해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 십자표 그음

보편지향기도

성인호칭기도

구마기도와 예비신자 성유 도유

세례집전

- 세례수 축복
- 마귀를 끊고 신앙을 고백함
- 세례식

♣ 나는 성부와 (첫 번째 물 붓고)

성자와 (두 번째 물 붓고)

성령의 이름으로(세 번째 물 붓고) ()에게 세례를 줍니다.

◎ 아멘.

축성성유 도유

흰 옷을 입혀줌

촛불을 켜줌

에파타(열려라)

마침- 주님의 기도

강복